

Dubai유, 2006년 60달러 “상회”

산업은행, 원유 공급여력 축소에 소비증가 ... 제조업 채산성 악화

국제유가가 20%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.3%p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.

산업은행은 9월15일 <국제유가 상승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> 보고서에서 “원유 공급여력이 감소한 반면 소비 증가세는 지속되면서 유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2006년에는 두바이(Dubai)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것”으로 예상했다.

두바이유는 2004년 4/4분기 평균가격이 배럴당 35.77달러였으나 2005년 1/4분기에 41.81달러, 2/4분기에 47.99달러로 올랐으며 9월12일에는 55.25달러를 기록했다.

산업은행은 “국제유가 상승이 우리나라의 물가, 기업채산성, 경상수지, 경제성장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”이라면서 “2005년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2/4분기까지의 평균(46.45달러)보다 10% 상승하면 성장률은 0.1%p, 20% 상승하면 0.3%p 하락할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

또 10% 상승하면 민간소비 신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0.1%p 낮아지고, 소비자물가는 0.3%p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20억2000만달러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.

특히, 20% 상승하면 민간소비증가율은 0.3%p, 설비투자증가율은 0.2%p 각각 하락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0.6%p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36억7000만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.

한편, 제조업의 제조원가는 유가가 10% 상승하면 0.73%, 20% 상승하면 1.45% 올라 국내 제조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.

<화학저널 2005/09/16>